

# 교통시기의 대구향교 연구

김석배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고전문학 전공  
sbkim5@hanmail.net

I. 머리말

II. 대구향교의 위치

III. 대구향교 건물의 구성과 배치

IV. 남산동으로의 이전 경위

V. 대구향교에 설립된 학교

VI. 맺음말

## I. 머리말

향교는 공자와 유교 성현에 대한 향사(享祀)와 유생에게 유학을 교수할 목적으로 지방에 설립된 관립 중등교육기관이다.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지방에 건립되었는데, 고려 인종 5년(1127)에 전국의 주(州)에 향학(鄉學)을 세우도록 조서를 내린 적이 있고, 각 군현에 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사례가 나타난다. 향교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은 조선시대 초이다. 즉,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을 모든 백성에게 보급시키기 위한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군현에 향교를 건립한 것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당시에 전국 329개 고을에 향교가 건립되어 있었다.<sup>1)</sup>

대구에도 일찍이 향교가 설립되었지만 문헌이 영성하여 정확한 창건 연대를 알 수 없다.<sup>2)</sup> 일설에 의하면 태조 7년(1398)에 창건하였는데, 정종 2년(1400)에 소실되고, 곧 재건하였다고 한다.<sup>3)</sup> 그리고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의 병화로 소실되고, 선조 32년(1599) 달성(達城) 남각(南角)에 중건하였는데, 사갈불상지조(蛇蝎不祥之兆)가 있어 선조 38년(1605) 다시 교동으로 이건하였다고 한다.<sup>4)</sup> 그 후 대구향교는 3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 동안 교동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문묘로서의 역할과 교육기관, 사회 교화 기관, 공론 소재처, 지방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대구향교는 1932년 10월 8일(양력 11. 5) 남산동 아미산록(蛾眉山麓)으로 이건되었는데, 이 건된 지 오래지 않아 교동시기의 향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건물 구성과 배치 형식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그 위치마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대구향교와 관련된 문헌, 지도, 사진, 신문 기사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동시기 대구향교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교동시기 대구향교의 위치, 건물의 구성과 배치 형식, 남산동으로 이 건한 경위 등을 고찰하고, 아울러 향교에 설립되었던 사립 협성학교 등 여러

1) 김호일, 『한국의 향교』(대원사, 2004), 7-10쪽.

2) 대구향교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성종 12년(1481)에 완성된 『동국여지승람』 「대구도호부」조의 “鄉校在府東二里”이다.

3) 安潛 編, 『鄉校誌』 油印本(1966), 12쪽. 안잠은 순흥인, 병오생(1906)으로 1966년 당시 대구향교 장의였다.

4) 대구향교재단, 『대구향교근세사』(1997), 11쪽; 대구향교, 『대구향교지』(2007), 356쪽.

학교를 살펴 대구향교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대구향교의 위치

대구향교가 현재의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735-1번지로 이관하기까지의 연혁은 「대구향교전후이건사실(大邱鄉校前後移建事實)」에 정리되어 있다.

### 대구향교전후이건사실

본 향교는 고을의 동쪽 성 밖에 처음으로 창건되었으나 용사(龍蛇)의 난리 때 십나라 오랑캐가 경내를 함락했던 동안에 불타버렸다. 8년 뒤 기해년에 관찰사 한준겸과 부사 김구정이 사람과 더불어 논의하고 협력하여 달성 남각으로 이전하였으나, 뱀과 지네가 나타나는 등 상서롭지 못한 징조가 있었다. 그리하여 7년 뒤인 을사년에 관찰사 겸 부사 유영순이 장계를 올려 윤허를 받아 도로 옛터로 옮겼다. 그 다음해 병오년 4월 11일에 성묘(聖廟)의 상량을 하니, 제도가 그런대로 훌륭하게 되었다. 동·서무의 건축과 관련된 사실은 옛 들보 위에 이를 기록한 글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해, 어느 날에 건축하였는지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다.

명륜당과 동·서재의 경우는 지난 임진년에서부터 갑자년에 이르기까지 미처 세우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힘이 부족하여 미루어온 지가 33년이나 되었다. 이해 가을 향사(享祀)의 준여(餘餘) 때 전 고을의 사림이 부사 한명옥에게 중건을 청하여 그 날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가 반도 끝나기 전에 추운 겨울이 닥쳐 공사를 중지하였다. 그 다음해 을축년에 부사 조국빈이 부임하였는데, 무릇 영건(營建)하는 일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 흐르듯이 쉽게 들어주었다. 이에 다시 공사를 속개하여 9월 25일에 상량하니, 조리 있게 일을 처리하여 이곳의 밝은 전장(典章)과 문물을 영원토록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고종 갑오년 이후로 철로를 놓는 것이 유행이 되어 잡인들의 발길과 분진들이 본 향교의 옆으로 어지러이 지나게 되니, 실로 존성위도(尊聖衛道)의 자리로는 마땅치 못하였다. 그래서 신미년 봄에 도지사 김서규와 군수 박재륜, 부군의 유립, 교재관리부(校財管理部)가 모두 함께 의론하여 한가하고 조용한 곳을 택하여 새로 터를 잡고, 그 다음해 임신년 4월 8일에 터를 닦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6월 25일에 상량을 하고 9월 25일에 준공을 하였으며, 10월 3일에 위패를 봉안하고 10월 8일에 그곳에서 낙성식을 행하였다.

공부자 탄강 2483년 임신년 12월 10일에 시임 직원 전병근은 삼가 쓰다.<sup>5)</sup>

5) “大邱鄉校前後移建事實 本校肇基於本邑東城之外而值龍蛇之亂燼毀於島夷陷境之中 越八年己亥觀察使韓浚謙府使金九鼎與士林敦事宣力移建于達城南角 而因有蛇蝎不祥之兆

이 글은 당시의 직원 전병곤이 대구향교가 1932년 10월 8일(양력 11. 5)에 남산동으로 이진된 두 달 뒤인 1932년 12월 10일(양력 1933. 1. 5)에 찬한 것이다. 직원(直員)은 현재의 전교(典校)이다. 대구향교는 고을의 동쪽 성 밖에 창건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고, 기해년(선조 32, 1599)에 관찰사 한준겸과 부사 김구정이 사림과 협력하여 달성 남각으로 이진하였다. 을사년(선조 38, 1605)에 관찰사 겸 부사 유영순이 사갈불상지조가 있어 장계를 올려 윤허를 받아 옛터로 이진하였다. 그런데 『한국대구안내』에 대성전 앞의 고와(古瓦)에 “만력삼십오년이월일(萬曆三十五年二月日)”이 새겨져 있다<sup>6)</sup>고 하므로 대성전 이진은 1607년 2월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여력이 없어서 명륜당을 건립하지 못하였고, 임진년(인조 2, 1624)에 고을의 사림이 부사 한명옥에게 중건을 건의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을축년(1625)에 부사 조국빈이 준공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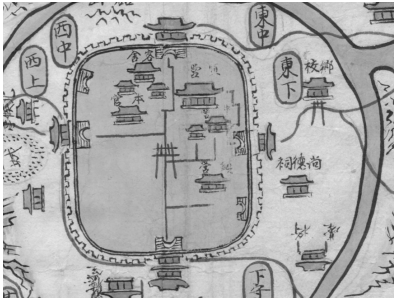
그리고 「대구향교전후이진사실」 가운데 향교 터, 즉 향교의 위치에 대해서도 고증이 필요하다. 영조 43-44년(1767-1768)에 편찬된 『대구읍지』 「향교」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향교. 부의 동쪽 2리에 있다. 처음에는 동문 밖 고성에 있었는데, 지금은 옛 향교 터라고 한다. 만력 기해년에 달성으로 옮겼다가 을사년에 달성으로부터 지금의 터에 옮겨 다시 지었다. 명륜당과 동·서재는 한결같이 태학 제도에 의거하여 성묘 뒤편에 두었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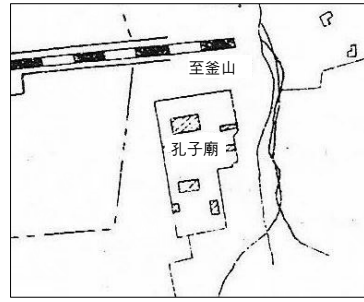
故越七年乙巳觀察使兼府使柳永詢狀啓蒙允遷移于舊基 越明年丙午四月十一日上聖廟之樑制度苟美 東西廡建築一款則無其舊樑上所記之文故難的如何年月日 而至若明倫堂及東西齋自往壬辰居于甲子未能建成其間力綿遷延三十有三歲也 是歲秋享餞餘全鄉士林請建于府使韓明勛即日施設役未及半而當冬寒停役 越明年乙丑府使趙國賓來莅凡於造營之事觀聽如流 乃復續役九月二十五日上樑綜理就緒永觀此典章文物之明矣 粵自高宗甲午之後風潮鐵線跡跡煙塵雜沓乎本校之側實未安尊聖衛道之地 故歲在辛未春道知事金瑞圭郡守朴濟輪府郡儒林及校財管理部總協公議而取閒靜地卜新基于此越明年壬申四月八日開基始役 六月二十五日上樑 九月二十五日訖功 十月三日奉安位牌 十月八日行落成式焉 孔夫子誕降二千四百八十三年 壬申十二月十日 時任直員全柄坤謹識.” 번역은 輔仁會, 『國譯 校宮記輯錄』(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51-52쪽 참조.

6) 野田正, 『韓國大邱案内』(大邱實業新報社, 1905), 11쪽.

7) “鄉校 在府東二里 初在東門外古城 至今謂舊鄉校基 萬曆己亥移建于達城 乙巳自達城改建于今基址 明倫堂東西齋一依太學制度在聖廟後”(김택규·박대현 편역, 『大邱邑誌』, 대구광역시, 1997). 純祖 32년(1832)에 편찬된 『邑誌』(慶尙道邑誌)에도 그대로 수록되어 있다(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邑誌 1-경상도①』, 아세아문화사, 1982, 13쪽).



지도1-18세기 후기



지도2-1907년경



지도3-1918년

대구향교는 동문 밖의 고성(古城)에 창건하였는데, 기해년에 달성으로 이관했다가 을사년에 현재의 자리에 개건하였다. 동문 밖 고성의 옛 향교 터(舊鄉校基)는 지금의 향교 터(今基址)인 부의 동쪽 2리와 동일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 분명하다.

이제 300년 이상 교동에 소재했던 대구향교의 정확한 위치부터 파악해 보기로 한다. 지도1은 18세기 후기에 편찬된 <대구부읍지>에 있는 <대구부읍지도><sup>8)</sup>의 일부이고, 지도2는 1907년경에 제작된 <대구부철도선로도><sup>9)</sup>의 일부이다. 그리고 지도3은 1918년 6월 30일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에서 발행한 대구시가도인 <대구>의 일부이다.<sup>10)</sup>

지도1에는 향교가 진동문(鎭東門) 동북쪽에 있고, 입구에 홍살문이 서 있는 것이 보이며, 지도2에서 향교의 위치와 건물 배치의 윤곽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도3은 향교의 위치와 1913년 12월에

8) 경북대학교중앙도서관 소장, 필사 채색도, 34.5×42.8cm.

9) 조선총독부철도국, 『조선철도사』 제1권(조선총독부, 1929), <도판 9>.

10) 1917년에 측도하고 1918년에 제관한 대구 실측지도이다. 향토역사관, 『옛 사진으로 본 근대대구, 부록』(대구문화예술회관, 2008).



지도4-1927년



지도5-2006년

대구역에서 동쪽으로 도로(현 태평로)가 나고 향교의 일부가 도로에 들어가면서 두 부분으로 분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1)</sup>

지도4는 1927년 10월 당시 <대구시가전도>로 지번이 기입되어 있어 향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동본정(東本町) 1번지에 명륜당과

11) 대구부 동본정(교동) 26, 27번지 토지대장에 “大正 二年 十二月 二十日 一部 國有道路 成”으로 되어 있다.

동·서재가 자리하고, 동본정 27-1번지에 대성전과 동무(東廡)·서무(西廡)가 자리하였다. 토지대장에 의하면 동본정 26, 27-2, 30번지 등도 모두 향교의 소유지이다. 동본정은 1947년에 교동(校洞)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지도5는 <대구광역시 지적편집도>(2006)<sup>12)</sup>로 교동 1번지와 교동 27-1번지에 77태평아파트가 들어서 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향교는 조선 초에 동문 밖의 고성(古城)에 창건되어 임진왜란을 겪은 후 잠시 달성에 이진되었다가 곧 교동으로 이진되었으며, 1932년에 남산동 아미산록으로 옮기기 전까지 300여 년 동안 옛 교동, 지금의 태평로 1가의 77태평아파트 중간 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 옛 대구향교 자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지석과 안내판을 세울 필요가 있다.

### Ⅲ. 대구향교 건물의 구성과 배치

#### 1. 대구향교의 건물 구성

향교는 일반적으로 배향공간과 강학공간 그리고 지원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공간이나 건물의 구성은 일반 관아건축이나 서원건축보다 그 지역의 경계가 확실하고 위계적이며, 건물의 독립성이 대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sup>14)</sup>

먼저 대구향교의 배향공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공자와 선현을 모시는 배향공간은 대성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청으로 동무와 서무가 있고, 그 전면(前面)에 출입문인 내삼문(內三門)이 있다.

대성전은 대성(大成)을 의미하는 공자의 위패를 모시던 건물에서 유래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4성(四聖)과 공자의 제자 등도 함께 봉안하게 되었다. 즉, 대성전에는 공자와 4성, 공문 10철(孔門十哲), 송조 6현(宋朝六賢)의 위패를 봉안한다. 그리고 동무와 서무에는 공자의 제자 72현,

12) 이동희, <대구광역시 지적편집도> 164매 중 100호(주)대경지에스엠, 2006. 4.

13) 행정구역은 1980년 4월 1일자로 변경되었는데, 현재 77태평아파트의 주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1가 23-1번지이며 도로명주소는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205'이다.

14) 조원섭·이달훈, 「지형에 따른 향교건축의 배치 위계 연구」, 『교육시설』 Vol. 10, No. 5(한국교육시설학회, 2003), 36쪽.

한·당·송·원 22현(漢唐宋元二十二賢), 동국 18현(東國十八賢)을 모신다.

조선시대에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향교의 규모가 다르며, 대성전의 등위(等位)도 대설위(大設位)·중설위(中設位)·소설위(小設位)로 구분하고 배향하는 인물의 수가 다르다. 대구향교는 중설위로 대성전에 문선왕(文宣王) 공자를 정위(正位)로 하고 4성을 배향하고, 공문 10철과 송조 6현을 종향하며, 동무와 서무에는 동국 18현을 종향하여 합 39위를 봉안하였다.<sup>15)</sup>

시대가 바뀔에 따라 문묘에 배향하는 인물과 방법도 변하게 되었다. 1949년 6월 전국유림대회에서 우리나라의 문묘에 중국의 10철, 공문 72현, 한·당·송·원 22현까지 봉안하는 것은 사대사상의 표현이라 하여 공자와 4성, 송조 2현(정호·주희) 이외의 위패는 없애고 동국 18현을 대성전에 함께 배향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후 1961년에 공문 10철과 송조 4현을 복위시킴으로써 대부분의 향교가 이를 따르고 있다.<sup>16)</sup> 그러나 현재 대구향교는 대성전에 공자와 4성, 송조 2현, 동국 18현을 배향하고 있다.<sup>17)</sup>

사진은 교동시기의 대구향교 대성전이다.<sup>18)</sup> 대성전은 남산동으로 이건되었는데, 『향교지』에 의하면 건평 67.5평, 목조와즙(木造瓦葺) 6칸 퇴(六間退), 정문(正門) 2비(二扉), 동협문(東夾門) 2비, 협서문(西夾門) 2비, 중계(中階) 3층, 동계(東階) 3층, 서계(西階) 3층이다.<sup>19)</sup> 현재의 대구향교는 1973-1974년에 정화사업을 벌였는데<sup>20)</sup>, 이때 대성전과 동·서무는 전면 보수되고, 내삼문과 동소문은 이건되었다. 현재의 대성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99.63m<sup>2</sup>)의 겹처마 맞배지붕이다.<sup>21)</sup>

15) 서석태, 『대구읍지』(1924), 45쪽; 대구향교, 앞의 책, 355쪽. 공문 10철은 閔損·冉耕·冉雍·宰予·端木師·冉求·仲由·言偃·卜商·顓孫師이고, 송조 6현은 周敦頤·程顥·程頤·邵雍·張載·朱熹이며, 동국 18현은 薛聰·崔致遠·安珣·鄭夢周·金宏弼·鄭汝昌·趙光祖·李彦迪·李滉·金麟厚·李珣·成渾·金長生·趙憲·金集·宋時烈·宋浚吉·朴世采이다.

16) 김호일, 앞의 책, 15쪽.

17) 대구향교재단, 앞의 책, 13쪽.

18) 대구향교, 앞의 책, 13쪽.

19) 安潛 編, 앞의 책, 15쪽.

20) 1973년 11월 13일 착공하여 1974년 10월 3일 낙성하였다. 대구향교재록편찬위원회, 『대구향교재록(大邱鄕校齋錄)』(1978), 5장 뒷면.

21)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향교건축-남서부편』(2002), 28쪽. 1982년 3월 4일 대구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사진1-대성전



사진2-내삼문

다음으로 동무와 서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동·서무 역시 현 소재지로 이건되었는데, 『향교지』에 의하면 각 건평 18평, 목조와즙 3칸이다.<sup>22)</sup> 현재의 동·서무는 1973-1974년에 대성전과 함께 전면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25.76m<sup>2</sup>)의 흘처마 맞배지붕이다.<sup>23)</sup>

사진2는 대성전에 출입하는 내삼문이다.<sup>24)</sup> 뒤로 대성전과 서무의 일부가 보인다. 내삼문도 이건되었는데, 『향교지』에 의하면 건평 15평, 목조와즙 3칸, 정문 2비, 동협문 2비, 서협문 2비이다.<sup>25)</sup> 현재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흘처마 맞배지붕이다.

이제 강학공간의 건물인 명륜당과 동·서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명륜당은 유생을 교육하는 장소로, 일반적으로 중앙에 대청을 두고 양쪽에 온돌방을 두는 형태를 취한다. 동재와 서재는 유생들이 공부하고 숙식하는 장소로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자제들은 동재를 사용하고 평민의 자제들은 서재를 사용하였다. 교생의 수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경국대전』을 보면 부·대도호부·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각 향교에서 정액(定額)을 무시하고 많은 교생을 입교시켜 향교가 피역(避役)의 소굴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sup>26)</sup> 1885년경에 작성된 「대구부사례」에 의하면 당시 대구향교의 교생(校生) 수는 90인, 동몽(童蒙)은 20인이었다.<sup>27)</sup> 동몽은 15세 이하로 정원에 관계없이 교육이

22) 安潛 編, 앞의 책, 15쪽.

23)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29쪽.

24) 경상도칠백년사편찬위원회, 『경상도칠백년사』 4(경상북도, 1999), 678쪽. 廟南門이라고도 한다.

25) 安潛 編, 앞의 책, 15쪽.

26) 윤희면, 『조선 후기 향교 연구』(일조각, 1996), 47-48쪽.



사진3-명륜당

가능하였다.

향교의 유생들은 과거급제를 목표로 공부했기 때문에 교과과정도 과거시험 과목에 맞추어져 있었다. 중요 교과목은 『소학』, 『효경』, 사서오경이었고, 이 외에 『성리대전』, 『삼강행실도』, 『심경』, 『근사록』, 『가례』 등의 유교 관련서와 『통감』, 『송원절요(宋元節要)』 등 역사서도 중요한 교과목이었다.<sup>28)</sup>

명륜당도 현 소재지로 이건되었는데, 사진3은 개축되기 이전의 명륜당의 모습이다.<sup>29)</sup>

『향교지』에 의하면 명륜당은 건평 72평, 목조와죽 9칸, 대청 6칸, 동협실(東夾室) 1칸반, 서협실(西夾室) 1칸반이었다.<sup>30)</sup> 현재의 명륜당은 1973-1974년에 전면 해체하여 개축하면서 철근콘크리트로 한식(韓式)을 모방하여 대폭 확장하였다가 설계 부실이 문제가 되어 1976년에 완전 개수(改修)<sup>31)</sup>하였기 때문에 교동시기의 명륜당과는 다르다.

교동시기의 동재와 서재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대구향교를 남산동으로 이건설 당시 일제가 유생들이 동재와 서재를 독립운동 장소로 이용할 것을 우려하여 양재의 이건을 저지하였기 때문에 대성전과 동·서무, 명륜당만 이건설하였다고 한다.<sup>32)</sup>

27) 오영교 편, 「大邱府事例」, 『한국지방사자료총서 9, 사례편(2)』(여강출판사, 1987), 101쪽.

28) 김호일, 앞의 책, 97-99쪽.

29)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1(대구시, 1973), 삼입 도판.

30) 安潛 編, 앞의 책, 15쪽. 『향교지』의 '大廳 六門'은 '大廳 六間'의 오키이므로 바로잡는다.

31) 대구향교재록편찬위원회, 앞의 책, 7장 뒷면.

현재의 동·서재는 1990년 10월에 복원한 것이다.

한편, 향교에는 일반적으로 향교를 관리하는 살림집인 교직사(校直舍)와 자료를 보관하는 경판고(經板庫), 제사에 필요한 기물을 보관하는 제기고(祭器庫)나 전사청(典祀廳) 등의 지원공간이 있다. 그리고 향교의 출입문인 외삼문(外三門)이 있고, 향교 정면 가까운 곳에는 일반적으로 홍살문(紅箭門)과 하마비(下馬碑)가 세워져 있다.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지만 대구향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홍살문은 앞에서 본 <대구부읍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향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양사재(養士齋)와 사마재(司馬齋)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향교가 교육적인 기능이 쇠퇴하여 더 이상 유생들의 교육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지방관과 유림들은 ‘양사(養士)’나 ‘흥학(興學)’을 목적으로 양사재를 설립하게 된다.<sup>32)</sup> 숙종대 이후 대부분의 고을에 향교 안이나 부근에 설립되었으며,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유생들을 선발하여 거처하게 하고 열흘이나 한 달 동안 매일 과예(課藝)하는 거접(居接)이 양사재에서의 주된 교육활동이었다.<sup>34)</sup>

대구의 양사재는 병술년(1766)에 판관(判官) 김로(金魯)가 향교의 동쪽 신문(神門) 밖에 창건하였는데<sup>35)</sup>, 관찰사 김응순(金應淳)과 판관 김로가 지은 양사재의 기문(記文)에 의하면 건립 당시에 일부 반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36)</sup> 춘추로 시험을 보아 정액의 교생을 선발하여 그곳에 거접하여 4과(四科)를 익히도록 하였다.<sup>37)</sup> 「대구부사례」에 의하면 매년 백일장을 열어서 유생 15인을 선발하고 40일간 거접하였으며, 경상감영

32) 경상북도·영남대학교, 『경북향교지』(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803쪽.

33) 양사재는 興學齋, 育英齋, 教興齋, 君子堂, 四教齋, 靜安堂, 麗澤齋, 養賢齋, 鄉塾堂 등으로도 불렸다.

34) 양사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정신문화연구』 57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의 특별기획 「조선 후기 양사재에 관한 종합적 검토」에 수록된 윤희면, 「양사재 설립과 운영실태」; 강대민, 「북도지방의 양사기구에 관한 소고」; 정순우, 「조선 후기 양사재의 성격과 교육활동」; 정진영, 「조선 후기 양사재의 성격」에 정리되어 있다.

35) 刀水園 앞에 있었다고 한다. 이순희, 『달구대관』 1(영남일보사, 1957), 22쪽. 도수원은 일본인이 詠歸亭 자리에 세운 일본식 요정으로 현 칠성꽃시장 맞은편에 있었다.

36) 김택규·박대현 편역, 앞의 책, 66-72쪽 참조.

37) “新增 養士齋 在 鄕校東神門外 春秋試才定額居齋 丙戌判官金魯册建”(『대구읍지』), “傍聖校而悅接數仞貯章甫而俾責四科”(金魯, 上樑文), “去校東六步七步有翼然新構者”(金應淳, 記). 위의 책.

에서 조(租) 10석, 대구부에서 조 15석을 보조받아 운영하였다.<sup>38)</sup> 양사재는 고종 이후에 없어졌다고 한다.<sup>39)</sup>

사마재는 조선 초기 이래 사마시(司馬試) 급제자 가운데 성균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없었던 생원·진사들의 교육장소로 향교 안이나 부근에 설립된 교육기관인데, 오래지 않아 조정의 반대로 폐지되었다. 조선 후기에 향교가 교육적 기능을 상실하자 생원과 진사들의 교육장소로 증건되거나 복설(復設)되었다. 사마재는 사마소(司馬所), 연계소(蓮桂所) 등으로도 불렸다. ‘연계(蓮桂)란 연방(蓮榜, 생원·진사 급제자)과 계적(桂籍, 문과 급제자)을 가리키는 말로서 19세기 들어와서 사마시 급제자들의 모임처인 사마소에서 문과 급제자들까지 확대하여 연계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0)</sup>

대구의 사마재는 『읍지』(경상도읍지, 1832)에 의하면 부의 동쪽 향교 옆에 있었는데, 경인년(영조 46, 1770)에 고을에서 재목을 구해 창건하였고, 정해년(순조 27, 1827)에 보수하였다고 한다.<sup>41)</sup>

## 2. 대구향교의 건물 배치

향교의 건물 배치는 배향공간과 강학공간을 배치하는 방법에 따라 나눈다. 향교가 경사지에 세워진 경우에는 명륜당이 앞에 위치하고 대성전이 뒤에 놓이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태로 배치하여 위치상으로 대성전을 우위에 놓이게 하고 있다. 전학후묘의 형태는 명륜당과 동·서재가 놓이는 방식에 따라 전당후재(前堂後齋)와 전재후당(前齋後堂)의 형태로 구별된다. 그리고 향교가 평지에 세워진 경우에는 대성전이 앞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뒤에 놓이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형태로 배치된다. 한편, 대성전과 명륜당이 좌우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성전이 왼쪽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오른쪽에 위치하는 좌묘우

38) “養士齋 乙酉金案前諱魯等內勸建 每年設白日場 抄選儒生十五人限四十日居接 而營門帖下租十石本府帖下租十五石並添補支供矣.” 오영교 편, 「대구부사례」, 앞의 책, 101쪽.

39) “高宗以後寢廢”, 서석태, 앞의 책, 42쪽.

40) 조영화, 「조선 후기 司馬所의 건립상황과 건축적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7호(대한건축학회, 2008) 참조.

41) “新增 司馬齋 在府東鄉校傍 英廟庚寅自鄉中鳩材創齋 以本鄉生員榜次錄案 上樑文及題詠 間經回錄不得記焉 近頗傾頽 故當丁亥修葺 判官趙公鍾淳書揭齋額.” 『읍지』(경상도읍지), 22면.

학(左廟右學)의 형태와 대성전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왼쪽에 위치하는 좌학우묘(左學右廟)의 형태가 있다.<sup>42)</sup>

교동시기 대구향교의 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읍지』에 “명륜당과 동·서재는 한결같이 태학 제도에 의거하여 성묘(聖廟) 뒤편에 두었다”<sup>43)</sup>고 하였다. 대구향교는 태학(성균관)과 마찬가지로 대성전이 앞에 위치하고 명륜당이 뒤에 놓이는 전묘후학, 전재후당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대구향교의 이러한 배치는 사진<sup>44)</sup>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진은 1916년에 대구향교를 촬영한 것이다. 전면 남향의 큰 건물이 대성전(㉞)인데, 나뭇가지 뒤로 현관(大成殿)의 일부가 보인다. 대성전 바로 앞의 오른쪽 건물이 동무(㉠)이고, 그 앞의 협문이 동소문(㉡)이다. 그리고 대성전 뒤로 보이는 남향의 큰 건물이 명륜당(㉢)이고, 명륜당 앞 오른쪽 건물이 동재(㉣)이다.



사진4-대구향교, 1916년

42) 김호일, 앞의 책, 61-66쪽 참조.

43) “明倫堂東西齋一依太學制度在聖廟後.”

44) 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70년사편찬위원회, 『경북중고등학교70년사』(경북고등학교·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 1986),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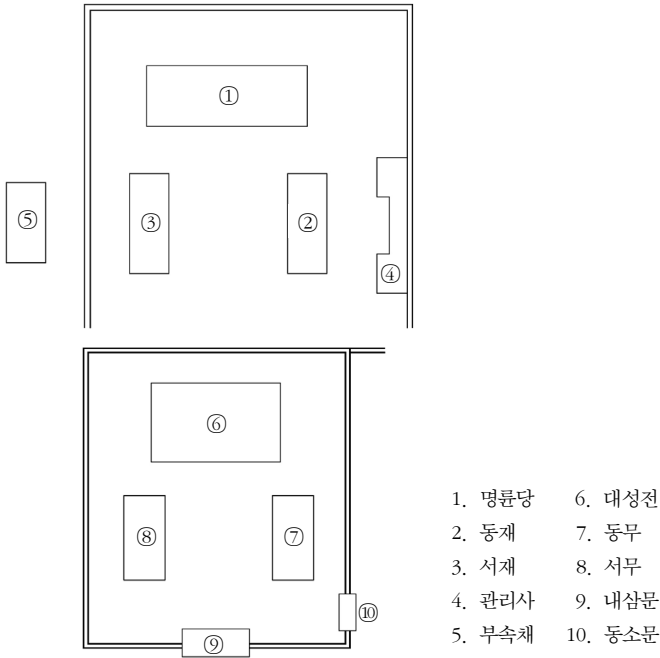


그림1-교동시기 대구향교의 건물 배치도

지도3(1918)과 사진4(1916) 그리고 일본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소장의 대구향교 사진<sup>45)</sup>을 바탕으로 교동시기 대구향교의 건물 배치도를 작성하면 그림1과 같다.

#### IV. 남산동으로의 이건 경위

대구향교가 교동시대를 마감하고 현 소재지인 남산동으로 이건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산동으로 이건한 경위는 앞에서 살펴본 「대구향교전후이건사실」에 잘 드러나 있다. 경부선 철로가 개통되어 잡인들의 발길과 분진들이 향교 옆을 어지러이 지나게 되어 향교가 존성위도의 자리로 적당치 못하게 되었다. 이에 1931년 봄에 도지사 김서규와 군수 박제륜, 부군의 유립, 교재관리부가 함께 의론하여 한가하고 조용한 남산동에 터를 잡고, 음력 1932년 4월 8일 공사를 시작하여

45) 대구근대역사관에 확대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6월 25일 상량하고 9월 25일에 준공을 하였으며, 10월 3일에 위패를 봉안하고 10월 8일에 낙성식을 행하였다.<sup>46)</sup>

당시의 신문기사를 통해 대구향교의 이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묘이전 진정, 대구향교장의

[대구] 지난 4일 오후 1시 대구향교에서는 장의회(掌議會)를 열고 문묘 이전 진정장의 20인의 련서로 대구부윤에게 제출키로 하였는데 이전 진정의 리유는 문묘는 대성공자 이하 여러 성현을 피신 신성한 곳인데 대구문묘는 아프로 한길 뒤는 철도 그 사이에 끼여 효삽할 쏴터러 현재 동우가 년구 퇴락하였스니 속히 적당한 곳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sup>47)</sup>

대구향교가 앞의 대로와 뒤의 철도 사이에 끼여 효삽하고 동우(棟宇)가 퇴락하여 적당한 곳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어 1931년 5월 4일 장의회를 열었으며, 장의 20인의 연서(連書)로 이전 진정서를 대구부윤에게 제출한 것이다. 경부선이 개통된 것은 1905년 1월 1일이고, 향교 앞으로 도로가 난 것은 1913년 12월이다.

1932년 8월 22일 오전 10시에 남산동의 새 문묘에 이안식(移安式)을 엄숙히 거행하고<sup>48)</sup>, 1932년 11월 5일 이전식을 거행하였다. 《동아일보》에는 이 건 당시의 기사가 향교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sup>49)</sup>

이와 같이 대구향교는 1932년 11월 5일 오전 11시에 수많은 유림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이전식을 거행하고 남산동시대를 열었다. 대구향교는 현 소재지로 이견되면서 건물 배치가 전묘후학에서 우묘좌학으로 바뀌었고, 명륜당 앞에 동재와 서재가 이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 기사를 통해 이 건 31년 전인 1901년에 대구향교가 대수리되었음도 알 수 있다.

46) 양력으로, 4월 8일은 5월 13일, 6월 25일은 7월 28일, 9월 25일은 10월 24일, 10월 3일은 10월 31일, 10월 8일은 11월 5일이다.

47) 《동아일보》, 1931년 5월 7일자.

48) 《매일신보》(1932년 8월 22일자)에 이안식 장면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49) “大邱文廟移建 五일 이전식 거행 [대구] 대구문묘(大邱文廟)를 행정(幸町)에서 월견산(月見山) 건너편으로 옮겨 신축 중이던바 요지를 낙성되어 五일 오전 十一시 이전식을 거행하였다. 당일은 아관박대의 유생들이 공자 맹자에 취하여 쇠도한 군중은 자못 성황을 이루었는바 동 문묘는 三백 二十七년 전에 지은 것으로 거금 三十一년 전에 대수선이 잇섯고 이번에 옮겨 세운 것이라 한다. 그지 一천六백九十三 평에 건물 함께 一백十九 평 九합 五작 으로 공사비 총계 三만 원인데 二만 원은 기체로써 하고 향교비로 년부상환하기로 하였다 한다.” 《동아일보》, 1932년 11월 7일자.

**大邱文廟移建**  
五일이전선거행

【대구】 대구(大邱)의 문묘(文廟)를 영정(永町)의 월전산(月見山)으로 옮기기로 하고, 오월 오일 오진(五月初五日) 오진(五進) 시에 이관(移建)하게 할 것이다.

대구는 아관(阿官)과 의관(義官)들의 공작(公作)에 힘입어 쇠도한 관주(官主) 자모(子母)와 이무(伊無)는 다들 문묘(文廟)를 三畝二十七坪에 지은 것으로, 기암(基岩) 三十一년전에 파수( 파수)선이 있었고, 이번에는 옮겨서 온 것이 더하다.

크지 - 一畝六坪 九十三평에 건물(建物) 一畝十九坪 九십五작으로 영사(永司) 총계(總計) 三畝인 데, 이 二만 원에 그 재(財)를 하고 향교(香校)로 二년부(二年) 상환(上還)하기로 하였다.

|| 사진(사진)은 이관(伊官)의 문묘(文廟) ||



사진5-《동아일보》, 1932년 11월 7일자

## V. 대구향교에 설립된 학교

대구향교에는 여러 학교가 설립되어 대구의 근대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구향교의 명륜당에는 한때 사립 협성학교(私立 協成學校), 대구공립농림학교(大邱公立農林學校), 관립 대구고등보통학교(官立 大邱高等普通學校), 수창공립보통학교(壽昌公立普通學校), 대성학관(大成學館)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거쳐 갔다.

대구에 설립된 근대학교의 효시는 1899년(광무 3) 7월 “준재총명지사(俊才聰明之士)를 배양 성취케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 달성학교이다. 1899년 4월에 제정 공포된 중학교 관제(官制)에 따라 경상감영 내 객사(50)를 빌려 개교하였는데, 발기인은 최극창(崔克昌)·박윤상(朴潤祥)·윤필오(尹弼五)·강영상(姜泳尙)·최상의(崔相宜)·정익조(鄭翊朝)·박인수(朴寅秀)·장규원(張圭遠)·최영달(崔英達)·추교정(秋敎鎭) 등 10인이며, 명예교사 신타니 마쓰스케(新谷松助)와 명예고문 히자즈키 마스키치

50) “令市 復舊, 大邱 城底 北內洞 客舍 前에 令市을 設置하야 居民 生業을 專爲하든 것이 不知幾百年이러니 前郡守 朴重陽 시가 學校 建築을 藉托하고 該令市를 南門 外에 一朝 勒移하든 後로 民生生理하야 嗷嗷離散티니 觀察使 리忠求 시가 客舍 壓潤을 悚懼하야 學校를 移建하고 동民 所失을 哀矜하야 令市를 復舊하되 人民이 稱誦不已하디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6일자.

(滕付益吉)가 초빙되었고, 찬성원은 김직현(金稷鉉)·김영호(金榮浩)·신경균(申慶均)·서상욱(徐相旭)·김동식(金東植)·현방운(玄昉運)·양학수(梁鶴壽)·김의원(金儀遠)·박찬규(朴燦圭)·공학순(孔學淳)·이소쇠(李小劔), 정명수(鄭命壽) 등이었다. 수업 연한은 8년에 심상과(尋常科)와 고등과(高等科) 각 4년씩으로 하고 2년 과정의 일어전수과(日語專修科)를 특설하였다. 초대 교장은 당시 경상도관찰사 김직현, 부교장은 장규원이었고, 그 후 1900년 10월 3일 윤필오가 제2대 교장이 되었다.<sup>51)</sup> 1899년 당시 학생 수는 53명이었다.<sup>52)</sup>

달성학교는 개교 이래 1906년까지 구 한국정부로부터 매월 10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된 후 일제의 탄압으로 심상과는 1906년 8월 27일 대구공립보통학교(현 대구초등학교)로 기구가 인계되고, 고등과는 1909년 3월 8일 대구향교의 명륜당에 설치되어 있던 협성학교와 합동하게 되었다.<sup>53)</sup>

## 1. 사립 협성학교

사립 협성학교는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에 의하면 우여곡절 끝에 설립되었다. 1906년 2월 22일(음력 1. 10) 도내 유림의 공의(公議)로 낙육재(樂育齋)와 양사재의 소유 전답을 바탕으로 협성학교를 설립·유지하기로 하고, 관찰사 이근호(李根濤)가 김호규(金護圭)의 청원을 학부(學部)에 보명(報明)하여 고종으로부터 내탕금(內帑金) 1,000원을 하사받았다. 그런데 당시 군수 박중양(朴重陽)이 낙육재 방매 등을 통해 학교

51) 권대웅, 「〈私立達城學校創設趣旨及校則〉 解題」, 『일제의 한국침략과 영남지방의 반일운동』(한국근세사연구회, 1995), 165-167쪽. 그런데 〈중추원조사자료〉에는 윤필오가 1900년 3월 29일 달성학교 교장에 피임되었으며, 1908년 7월 26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52) 『황성신문』(1899년 12월 29일자)에는 “(大邱學校의 請助) 大邱居 張圭遠 氏が 本年 六月分에 達城學校를 私立하고 校費를 鳩聚支用하였는데 今에 學徒는 五十三人이요 課程은 國漢文 地誌 算術 日語니 日本教師 一人을 延聘하여 實心教授하니 其補助金を 明年豫算에 編入支撥하기로 慶北觀察使 金稷鉉 氏が 學部에 報請하였다더라”로 〈私立達城學校創設趣旨及校則〉과 약간 다르게 되어 있다. 한편, 河井朝雄은 『大邱物語』(78쪽)에서 滕付益吉이 한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윤필오의 협력을 얻어 달성학교를 설립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53) 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7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1쪽. 그런데 大邱府 編纂, 『大邱民團史』(1915, 104쪽); 河井朝雄, 『大邱物語』(朝鮮民報社, 1931, 81쪽); 대구부, 『大邱府史』(1943, 216쪽)에는 달성학교가 1909년 4월에 협성학교와 합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도6-협성학교·농림학교, 1910년

재산을 탈취하려다 체임(遞任)으로 미수에 그친 일이 발생했다. 그 후 관찰사 이충구(李忠求)가 도내 유림과 협의하고 경상감영 내의 무고(武庫) 기지(基址)에 2층 반양옥(半洋屋) 65칸을 건축하던 중 1907년 겨울에 화재를 당하였고, 이에 십수 칸 일해(壹廡)를 구매하

여 1908년 6월경에 개교하였다. 당시의 교장은 서상하(徐相夏), 학생수는 40여 명에 달하였다.<sup>54)</sup>

협성학교는 1909년 무렵에 향교에 있었으며, 1916년 4월 관립 대구고등보통학교에 인계되고 문을 닫았다.<sup>55)</sup>

지도6은 1910년 7월 임시한국과건대 사령부에서 제작한 것으로 대구향교 자리에 협성학교와 농림학교가 보인다. 1911년 1월에 간행된 『대구일반』<sup>56)</sup>에도 대구향교 자리에 협성학교가 보인다.

## 2. 대구공립농림학교

학부(學部)에서 1909년 5월에 대구농림학교(현 대구자연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으로 일본인 이토 세이치로(伊藤精一郎)를 파견하여 교사를 건축할 터와 비용을 조사하였으며<sup>57)</sup>, 1910년 3월 14일 설립 허가를 받아 동년 5월 10일 향교의 건물을 빌려 개교하였다. 향교 서쪽의 한

54) 「學界競爭」, 《대한매일신보》, 1907년 12월 21일자; 「協成學校趣旨書」, 《황성신문》, 1907년 9월 26일자; 「對徐相夏氏 學校贊成 〇야 仍勉嶠南全道人士」, 《황성신문》, 1908년 7월 19일자; 「此何魔戲」, 《황성신문》, 1908년 10월 8일자; 「協校輪函」,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30일자; 「土論激發」, 《황성신문》, 1908년 12월 12일자. 그런데 『後潭文集』(石版本, 1962)에 樂育齋에서 수학했던 後潭 蔡憲植(1855-1993)이 협성학교의 교장을 역임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즉, 후담이 낙육재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낙육재의 토지의 유래를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속여서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환수하여 그 재원으로 협성학교를 세웠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채헌식도 한때 협성학교 교장을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 “協成學校起用 舊 樂育齋財源也 府君以居樂育齋久詳其土田由來顛委故 又被選而出 還收其土田於姦吏輩所詐占.” 『後潭文集』 卷六, 「家狀」. 장인진,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한문학회연구』 8(계명한문학회연구회, 1992), 195쪽에서 재인용.

55) 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7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1쪽.

56) 三輪如鐵, 〈대구시가도〉, 『대구일반』(옥촌서점, 1911).

57) 《황성신문》, 1909년 5월 9일자.

동에다 중간에 벽을 만들어 본과(本科)와 속성과(速成科)를 수용할 준비를 하고, 교직원들이 있을 조그마한 별실을 설치하여 전체의 교사로 총당하였다. 동쪽에는 이미 협성학교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본과는 2년제로 농업과 임업에 관한 전문교육의 수득(修得)을 목적으로 하고, 속성과는 1년제로 토지조사사업에 필요한 측량기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동년 10월 4일 신축교사(대봉동 60번지, 현 경대 사대부고 자리)로 옮겼다.<sup>58)</sup> 그 후 1923년 4월 17일 신천동 1093번지(현 쌍용화성아파트 자리)로 이전하고, 1955년 5월 9일 수성구 수성 2가 32번지(현 대구광역시교육청 자리)로 이전하였으며, 1981년 3월 1일에 현재의 수성구 노변동 100번지로 이전하였다.

### 3. 관립 대구고등보통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등학교)는 1916년 5월 16일 대구향교 내에 있던 협성학교의 기구를 인수하여 개교하고, 명륜당을 임시 교사로 사용하였다.

學校歷訪(十四) ▲大邱高等普通學校 此校는 大正 五年 三月 末 私立協成學校 廢止된 同時에 三南의 中等教育機關으로 大邱鄕校 明倫堂을 臨時 校舍로 하여 官立高等普通學校를 創設한바 元 協成學校 生徒 一同은 二年級으로 新募集 生徒는 一年級으로 하여 過去 一週年間 教育한지라<sup>59)</sup>



지도7-고등보통학교, 1918년

1916년 4월 7일 경상북도 잠업강습소에서 입학시험을 실시했는데, 시험 과목은 국어(일어)·산수·선한문(鮮漢文)이고, 지원자는 236명이었다. 1916년 4월 8일에는 학과시험 합격자 58명에 대한 신체검사 및 구두시험으로 45명을 선발한 다음 가입학을 허가했으며, 4월 10일에는 협성학교로부터 인계받을 물품을 조사하였다. 그리

58) 대구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총동창회, 『대구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백년사 1910-2010』 [대구자연과학(농림)고등학교총동창회, 2010], 101-102쪽.

59) 《매일신보》, 1917년 3월 6일자.

고 4월 11일 공립보통학교장들이 추천한 13명을 보탠 1학년 입학생 58명과 구 협성학교 재학생 가운데서 63명을 골라 제2학년에 편입시켜 가입학식을 거행하였다.<sup>60)</sup> 그 후 1917년 12월 16일 대봉동 신교사(현 청운맨션 자리)로 이전하였고, 1925년 4월 조선총독부 학교 관제의 시행으로 교명이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로 변경되었다.<sup>61)</sup> 그 후 1985년 1월 15일 수성구 황금동 9번지 현 교사로 이전하였다.

#### 4. 수창공립보통학교와 대성학관

향교에는 한때 수창공립보통학교와 대성학관 등이 있었다.

##### 壽昌學校 移轉

當地 幸町 大邱鄉校 內에 在하든 壽昌公立普通學校는 昨年來 當地 八雲町에서 新校舍를 建築 中이던바 今回 其工事が 落成을 告하얏슴으로 去 十八日에 新校舍로 移轉하얏더라(大邱)<sup>62)</sup>

수창공립보통학교(현 대구수창초등학교)는 1907년 7월에 사립 수창학교로 설립된 후 1914년 4월 수창공립보통학교로 되었다. 한동안 대구향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1923년 5월 18일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sup>63)</sup>

대성학관은 1922년 1월 10일 수정(壽町)의 전 수창보통학교에서 개관식을 거행하고, 1923년 10월 대구향교의 명륜당으로 이전하였다.

##### 大成學館 開館

數月 前부터 學生 募集中에 在하든 大邱學館은 伊來 良好한 成績을 得하야 豫定과 如히 去 十日 午前 十時에 當地 壽町 前 壽昌普通學校에서 盛大히 開館式을 舉行 하얏는대…….<sup>64)</sup>

60) 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70년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3-84쪽.

61) 위의 책, 83-84쪽.

62) 《매일신보》, 1923년 5월 23일자.

63) 大邱府, 『大邱府史』(1943); 손필현 역, 『개화기의 대구부사』(서우실, 2009), 192쪽. 대구수창초등학교 홈페이지의 〈학교 연혁〉에는 “1907년 7월 13일-사립수창학교로 발족(교동), 1914년 4월 1일-수창공립보통학교로 개교, 1923년 12월 4일-4년제에서 6년제로 승격(현 위치 이전)”으로 되어 있다. “壽昌公普 落成式 大邱壽昌公立普通學校는 過般來 新築 中이더니 今般 竣功되얏는대 五月 二八日에 盛大한 落成式을 舉行하얏더라(大邱).” 《동아일보》, 1923년 6월 2일자.

64) 《매일신보》, 1922년 1월 13일자.



지도8-대성학관, 1926년

大成學館 擴張, 儒教振興會 移營

大邱 大成學館은 今般 一層 擴張키 爲히야 儒道振興會慶北支部와 同達城郡分會에서 其維持及經營을 擔任하고 左와 如한 條件을 決定하였스며 館主는 徐錫台氏 館長은 金埴 氏로 選定하였고 同學館은 前 高等普通學校(大邱鄉校)로 移轉하였는대 決定事項은 如左하더라.<sup>65)</sup>

대성학관은 『대구부세일반』(1926)에 보인다. 그런데 대성학관을 경영하던 유도진흥회는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1927년 8월 12일 제10회 총회에서 오는 새 학기부터 문을 닫기로 결의하였다.<sup>66)</sup>

## VI. 맺음말

향교는 공자와 유교 성현에 대한 제향과 유생들에게 유학을 교수할 목적으로 지방에 설립된 관립 중등교육기관으로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65) 《동아일보》, 1923년 10월 13일자.

66) “경북유도진흥회(慶北儒道振興會)에서 경영하던 대구부 향당(大邱府 幸町)에 있는 명륜당(明倫堂)에서 일반 남녀에게 신교육을 주어 금일까지 온 대성학관(大成學館)은 학교로 승격시키고저 노력도 만히 하였스나 재정상 어찌할 수 업시 설비가 부족한 까닭으로 수포에 돌아가고 말았는바 경영할 능력이 업서서 지난 십이일 도회의실(道會議室)에서 열리엇든 유도진흥회 대심회 총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의한바 오는 새 학기부터는 아조 학관의 문을 다들 터이러는데 유도진흥회에서 교육기관은 폐하나 거액의 금전을 들이여 령남순보(嶺南旬報)라는 잡지를 발행하야 경북 각군 각동에 매월 넷책 씩 무료로 배부할 작덩이러는데 그 금액의 출처는 경북 향교(鄉校) 재산 중에서 도(道)의 량해를 어더 사천오백 원을 사용하게 됴이라고 한다더라 (대구)”(《중외일보》, 1927년 8월 16일자). 그런데 그 이후의 대구부지도(1928, 1930)에 여전히 대성학관(대성학원)이 보이고 있어 자세한 사정을 알기 어렵다.

전국의 각 군현에 설립되었다. 대구향교는 조선 초에 교동에 설립된 후 잠깐 달성으로 이 건한 적이 있지만 선조 38년(1605)에 다시 교동(현 태평로 1가 23-1)으로 이 건하여 300년 이상 문묘로서의 역할과 교육기관, 사회 교화 기관, 공론 소재처, 지방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1932년 대구향교가 남산동 아미산록으로 이 건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동시기의 향교는 건물 구성과 배치 형식 등은 물론 그 위치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져버린 교동시기 대구향교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향교는 여러 번 이 건되었다. 조선 초에 동문 밖의 옛 성에 설립되었는데, 1400년에 소실되었다가 곧 재 건되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1599년에 달성 남각에 중 건되었는데 사갈불상지조가 있어 1605년에 다시 교동으로 이 건되었다. 대구향교가 있었던 곳은 대구시 중구 교동 1번지와 교동 27-1번지(현 중구 태평로 1가 23-1번지 77태평아파트)였다.

둘째, 대구향교는 중설위로 배향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 강학공간인 명륜당과 동재·서재, 지원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건물 배치는 전묘후학과 전재후당의 형태였다. 그리고 대구향교의 동쪽에 양사재와 사마재가 있었다.

셋째, 1905년에 명륜당 뒤쪽에 경부선이 개통되고 1913년에 대성전 앞쪽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분진과 소음 등으로 대구향교가 더 이상 존성위도의 자리로서 적당치 못하게 되었다. 1931년 봄에 대구향교를 남산동 아미산록으로 이 건하기로 하고, 1932년 8월 22일에 이안식을 거행했으며, 같은 해 11월 5일 이전식을 함으로써 교동시대는 마감되고 남산동시대가 열렸다.

넷째, 대구향교에는 여러 학교가 설립되어 대구의 근대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명륜당에는 한때 사립 협성학교(1909년경-1916년 4월), 대구공립농림학교(1910년 5-9월), 관립 대구고등보통학교(1916년 5월-1917년 12월), 수창공립보통학교(?-1923년 5월), 대성학관(1923년 10월-1927년 8월?) 등 다양한 교육기관이 거쳐갔다.

## 참 고 문 헌

- 『대구부읍지』(경북대학교도서관 소장).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중의일보》, 《황성신문》 등.
- 강대민, 『한국의 향교 연구』. 경성대학교출판부, 1992.  
\_\_\_\_\_, 「북도지방의 양사기구에 관한 소고」. 『정신문화연구』 57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19-46쪽.
- 경북중고등학교70년사편찬위원회, 『경북중고등학교70년사』. 경북고등학교·경북중고등학교동창회, 1986.
- 경상도칠백년사편찬위원회, 『경상도칠백년사』 4. 경상북도, 1999.
- 경상북도·영남대학교, 『경북향교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1.
-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상북도의 향교건축-남서부편』. 2002.
- 권대웅, 「한말 경북지방의 사립학교와 그 성격」. 『국사관논총』 58, 국사편찬위원회, 1994, 21-48쪽.  
\_\_\_\_\_, 「〈사립달성학교창설금교칙〉 해제」. 『일제의 한국침략과 영남지방의 반일운동』, 한국근세사연구회, 1995, 165-167쪽.
- 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1996.
- 김택규·박대현 편역, 『大邱邑誌』. 대구광역시, 1997.
- 김호일, 『한국의 향교』. 대원사, 2004.
- 대구농립자연과학고등학교총동창회, 『대구농립자연과학고등학교백년사 1910-2010』.  
대구자연과학(농립)고등학교총동창회, 2010.
- 大邱府, 『大邱府史』. 1943.
- 大邱府 編纂, 『大邱民團史』. 1915.
- 대구시사편찬위원회, 『대구시사』 1. 대구시, 1973.  
\_\_\_\_\_, 『대구시사』 5. 대구광역시, 1995.
- 대구향교, 『대구향교지』. 2007.
- 대구향교재단, 『대구향교근세사』. 1997.
- 대구향교재록편찬위원회, 『대구향교재록(大邱鄕校齋錄)』. 1978.
- 대구향토문화연구소 편저, 『경상감영사백년사』. 대구광역시 중구, 1998.
- 박왕희, 『한국의 향교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
- 輔仁會, 『國譯 校宮記輯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3.
- 서석태, 『대구읍지』. 1924.
- 손인수, 『한국교육사연구(상)』. 문음사, 1998.
- 손필현 역, 『개화기의 대구부사』. 서우실, 2009.
- 安潛 編, 『鄕校誌』(油印本). 대구향교, 1966.

- 오영교 편, 「대구부사례」. 『한국학지방자료총서 9』, 여강출판사, 1987.
- 윤희면, 「양사재 설립과 운영실태」. 『정신문화연구』 57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3-18쪽.
- \_\_\_\_\_, 『조선 후기 향교 연구』. 일조각, 1996.
- 이기락, 〈地番入 大邱市街圖〉. 대한서림, 1962.
- 이동희, 〈대구광역시 지적편집도〉 164매 중 100호. (주)대경지에스엠, 2006.
- 이순희, 『달구대관』 1. 영남일보사, 1957.
- 장인진, 「경상감영의 낙육재 교육에 대하여」. 『한문학연구』 8, 계명한문학연구회, 1992, 177-198쪽.
- 정순우, 「조선 후기 양사재의 성격과 교육활동」. 『정신문화연구』 57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47-70쪽.
- 정진영, 「조선 후기 양사재의 성격」. 『정신문화연구』 57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71-91쪽.
- 조선총독부철도국, 『조선철도사』 제1권. 조선총독부, 1929.
- 조영화, 「조선 후기 司馬所의 건립상황과 건축적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4권 제7호, 2008, 143-152쪽.
- 조원섭·이달훈, 「지형에 따른 향교건축의 배치 위계연구」. 『교육시설』 Vol. 10 No. 5, 한국교육시설학회, 2003, 35-43쪽.
-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邑誌』 1-경상도①』. 아세아문화사, 1982.
- 향토역사관, 『옛 사진으로 본 근대대구』. 대구문화예술회관, 2008.
- 三輪如鐵, 『大邱一般』. 玉村書店, 1911.
- 野田正, 『韓國大邱案内』. 大邱實業新報社, 1905.
- 中濱究·山重雄三郎, 『大邱案内』. 麗朗社, 1934.
- 河井朝雄, 『大邱物語』. 朝鮮民報社, 1931.

## 국 문 요 약

향교는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걸쳐 전국의 각 군현에 설립된 관립 중등교육기관이다. 향교는 공자와 유교 성현에 대한 제향과 유생들에게 유학을 교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구향교는 선조 38년(1605)에 교동에 자리 잡은 후 300년 이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대구향교는 1932년 남산동으로 이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동시기의 향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 글에서는 교동시기 대구향교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구향교는 여러 차례 이진되었는데, 1605년 교동(현 중구 태평로 205, 77태평아파트)에 자리 잡은 후 300여 년 이상 그곳에 있었다.

둘째, 대구향교는 중설위로 배향공간인 대성전과 동무·서무, 강학공간인 명륜당과 동재·서재, 지원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건물 배치는 전묘후학과 전재후당의 형태였다.

셋째, 대구향교는 1932년 11월 5일 남산동으로 이진함으로써 교동시대가 마감되었다.

넷째, 대구향교에는 여러 학교가 설립되어 대구의 근대교육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명륜당에는 한때 협성학교, 대구공립농림학교, 대구고등보통학교, 수창공립보통학교, 대성학관 등이 거쳐갔다.

**투고일** 2014. 6. 2.

**심사일** 2014. 7. 28.

**게재 확정일** 2014. 8. 28.

**주제어(keyword)** 대구향교(Daeguhyanggyo), 교동(Gyodong), 대성전(Daeseongjeon), 명륜당(Myeongryundang), 전묘후학(Jeonmyohuhak), 남산동(Namsandong), 협성학교(Hyoebseonghakgyo), 대구농림학교(Daegunongrimhakgyo), 대구고등보통학교(Daegugondeungbotonghakgyo), 수창공립보통학교(Suchanggongribotonghakgyo), 대성학관(Daeseonghakgwan)

### A Study on Daeguhyanggyo during the Period of Gyodong

Kim, Sug-bae

The Hyanggyo was a public school built in each county and prefecture from late Goryeo Dynasty to Joseon Dynasty. The aims of the Hyanggyo were to make a progress in Confucian ideology and to strengthen the ideas of the ruling classes. DaeguHyanggyo had been at Gyodong for more than 300 years since its was established there in the 38th year(1605) under the reign of King Seonjo during the Joseon dynasty. In 1932 when it was moved to Namsandong and reconstructed there, Hyanggyo at Gyodong got completely forgotten in the histo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Daeguhyanggyo during the Period of Gyodong.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aeguhyanggyo had been there for more than 300 years since its was established in 1605 at Gyodong(Taepyeongro 205 street, 77Taepyeong APT, Junggu, Daegu City).

Second, Daeguhyanggyo consisted of three parts. The religious service area(the Confucian shrine) consisted of Daeseongjeon(a main shrine hall) and Dongmu and Seomu(east and west halls for memorial services), and Naesammun(gate-building). A studying area(public school) consisted of Myeongryundang(main lecture hall), and Dongjae and Seojae(dormitories on the east and the west housing a number of students studying at Hyanggyo). There were also many other facilities in Hyanggyo such as the administration office for the school manager. Daeseongjeon was located in front of Myeongryundang(Jeonmyohuhak).

Third, Daeguhyanggyo was moved to Namsandong reconstructed there in 1932.

Fourth, Daeguhyanggy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education of Daegu City by setting up several schools such as Hyoebseonghakgyo, Daegunongrimhakgyo, Daegugondeungbotonghakgyo, Suchanggongribbotonghakgyo, and Daeseonghakgywan.